

당뇨병성 족부질환에서의 절단술

이경태 / 을지여대 을지병원 족부정형외과 과장



당뇨병 환자들이 발에 오는 합병증치료 중에서 가장 무서워 하는 것은 절단일 것이고 합병증 치료도 절단을 미리 예방하는 데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먼저, 족부정형외과를 전공하는 의사로서, 본인은 다른 어떤 의사 못지 않게 절단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그래서, 환자 본인들과 싸우기도 하고, 설득시키기도 하고 여러 방법으로 달래보기도 한 경험이 많다. 그런데, 생각 밖으로 환자들의 '무지'가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키게 한 경우가 많아본 특집에서는 먼저 당뇨병에서 절단하지 않도록 조심할 세부사항과 두 번째 일단 심각한 상태가 초래한 후의 대처 방안 등으로 나누어 얘기를 진행시키고자 한다.

당뇨병 환자가 절단을 피하기 위해 조심해야 할 사항

흔히 당뇨병 환자들은 의사들이 발에 대해서 주는 주의가 너무 많기 때문에 환자들이 혼동하거나,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흔히 있고, 특히 당뇨병 환자들에게는 여러 부위, 즉 눈이나 콩팥, 심장, 혈압 등에 대한 주의가 많아서 발에 대한 주의는 몇 가지 중요한 핵심만을 얘기해 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대개 절단을 하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의 근본 원인은 큰 혈관이 막혀서 발생하는 경우보다는 오히려 발가락이나 발톱의 아주 작은 상처 혹은 발가락 사이의 티눈이나 발바닥의 굳은살 등이 원인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발, 특히 발가락에서는 절대로 조그마한 상처라도 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사항들을 조심해야 하고 실생활에서 특히 잘 발생하는 실수들을 잘 알고 이에 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첫째는 발톱을 깎을 때 부주의해서 상처를 내거나 너무 깊게 깎거나 하는 일 - 게다가 당뇨병으로 인한 백내장이나 시력장애가 있을 때는 더욱 더 조심해야 한다 - 또는 발톱을 너무 둥글게 깎아서 엄지발톱이 발가락을 파고 들어가는 모지내향증 등이 발생하여 피부에 염증을 유발시키고 결국 이것이 원인이 되어 발전체가 굽는 일들이 자주 있기 때문에 발톱을 깎을 때는 매우 조심을 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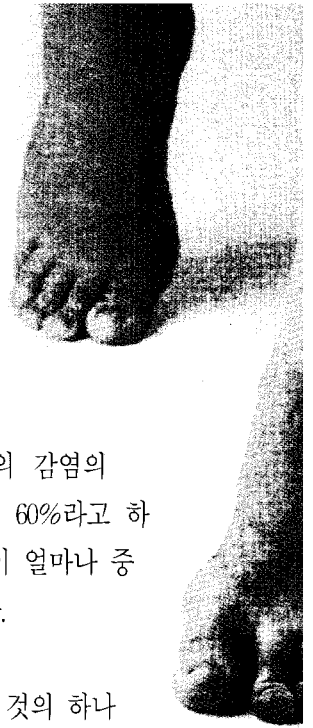
둘째로는 발가락 사이의 무좀이 발가락 사이의 살을 갈라지게 해서 상처를 내는 일로, 이것이 피부에 정상으로도 존재하는 황색포도상구균 등의 감염을 유발해서 나중에 절단을 초래하는 일들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을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발을 씻고 잘 건조시키는 발의 위생이 당뇨병 환자에게 무척 중요하다 하겠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발가락 사이의 상처가 당뇨병 발의 감염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전체의 60%라고 하는 것만 봐도 무좀의 예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흔히 실수하는 것의 하나는 - 특히 한국인들에게 흔한 경우인데 - 뜨거운 목욕물에 너무 오래 담귀 수포가 생겼다가 상처가 나는 일 등이다. 우리의 목욕습관 중에서는 탕(湯)문화라 해서 가볍게 샤워를 하는 것보다는 따뜻한 물에 온몸을 푹 담귀서 목욕하기를 즐기는 습관이 있는데, 당뇨병 환자 특히, 신경병성 합병증이 발현되어 감각이 일반인들에 비해 무딘 분들에게는 매우 좋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다. 즉 너무 뜨거운 물인데도 이를 감지하지 못하고 그냥 들어가 있다가 화상을 입고 그것이 궤양의 원인이 되어 큰 문제를 일으키는 수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뇨병 환자들은 되도록 탕에 오래 들어가는 목욕습관보다는 되도록 샤워를 즐겨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고, 또 일단 탕에 들어가더라도 절대로 뜨거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 그리고 손, 발이 붙어서 피부가 변화되지 않는 정도로 약 5분 이상은 지속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절단 심각한 상황이 초래되었을 경우의 대처

그렇다면 정말 심각한 상황이 벌써 와 있다고 한다면, 과연 어찌해야 할 것인가?

당뇨발에서 절단이 요구되는 경우는 말초혈액 순환장애로 괴저가 발생했거나, 궤양의 정도가 심하여 보존적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 또는 약물 치료나 수술로 회복이 불가능한 심한 감염이 동반된 경우, 교정하기 힘든 족부변형이 있거나 허혈로 인해 잠자기 힘들 정도의 족부통증을 호소할때 진행한다.

어느 부위를 절단할 것인가는 감염정도, 말초혈액순환 상태에 따라 결정되며, 이외에도 절단단의 기능적인 면 등을 주의깊게 고려하여 치료하게 된다.

당뇨발의 치료 중에서 가장 확실한 치료방법 중의 하나가 절단이기 때문에 전문의사의 판단이 절단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면, 먼저 정확한 검사(혈관검사와 감염이 어디까지 갔는지를 아는 검사 등)를 신중히 하고 절단부위를 결정, 수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때로는 균감염으로 인해 '폐혈증'의 가능성이 있어 생명이 위독한데도 그냥 절단만은 피해달라고 하는 보호자나 환자가 있는데, 이는 정말로 위험한 일이다. 그리고 때로는 한번 절단한 후에는 계속 더 위쪽으로 절단을 해야만 된다는 고집을 피우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여러가지 좋은 검사들이 절단 부위를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되도록 최소한의 절단(minimal amputation)만을 하도록 하는 수술법들이 연구되기 때문에 환자들은 의사들의 권고를 따르는 것이 현명하다고 하겠다.

아울러 절단술을 하면, 나는 이제 장애인이라고 본인을 비하하고, 실망해 하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최근의 보조기의 기술이나 재활방법 등이 매우 발전되어, 일상생활에는 문제가 없고, 심지어는 스키나 조깅 등의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도 많다는 것을 꼭 얘기하고 싶다.